

한국교회 섬김의 날 백서



Korean National Pastors' Conference

“목양진심(眞心), 사명전심(全心)”





본 책자는 2024년 10월 21일(월)부터 22일(화)까지 1박 2일간 사랑의교회에서 진행된 '제3회 한국교회 섬김의 날'에 대한 기록을 담은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 섬김의 날 현장에서 역사하셨으며, 한국교회의 부흥은 '2033-50 비전'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1021
제3회 Korean National Pastors' Conference
한국교회 섬김의 날
“목양진심(眞心), 사명전심(全心)”



한국교회가 세계교회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엡1:21~23)



한국교회를
향한

기도

한국교회를 향한 제사장적 기도는 '2033-50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부흥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대한민국의 영적 재건을 위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플랫폼입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섬김

한국교회를 위한 물 떠 온 하인의 섬김은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영혼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절대진리를 수호하는 거룩한 방파제입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회복

한국교회를 향한 회복의 심포니(Symphony)는 목회자들을 하나되게 하는 거룩한 하모니가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세계 복음주의 교회의 쇠퇴를 막는 영적 대반전의 근원지입니다.





제102회 한국교회 섬김의 날



Contents



1021 제3회 Korean National Pastors' Conference 한국교회 섬김의 날 “목양진심(眞心), 사명전심(全心)”

04	한국교회를 향한 기도
06	한국교회를 향한 섬김
08	한국교회를 향한 회복
12	목차
14	인사말
16	Chapter 1 ‘한국교회 섬김의 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18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
20	인생 10월, 은혜의 강수가 흐르게 하옵소서
22	청계산 산상 구국기도회
26	한교성을 위한 전교인 금식기도회
30	제22차 가을 글로벌 특별새벽부흥회
36	10.27 한국교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46	2025 WE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출범 감사예배
50	한국교회 섬김의 날의 의의



62	Chapter 2 첫째날 목양진심(牧養眞心)
64	개회예배
70	전체 특강
72	사역의 비밀병기 <제자훈련 2.0>
76	섬김의 날 특별(Gala) 공연
80	산상성령집회
84	Chapter 3 둘째 날 사명전심(使命全心)
86	사랑의교회의 비밀병기: 창목회
90	사명의 비밀병기: 트랙별 강의
94	목양의 비밀병기: 순장반
98	파송예배
104	Chapter 4 ‘한국교회 섬김의 날’, 계획의 성취
106	현장화보
126	통계
130	언론보도
132	축하메세지
140	은혜보고(참가자 인터뷰)
150	믿음보고(디자인)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통해 스스로 그 일을
이루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옆에 있는 우면산에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제1회 한교섬을 앞두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수천 명의 목회자들을 섬길 수 있을까 진지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는 주제와 “사람에게는 진심(眞心), 하나님께는 전심(全心)”이라는 구호를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진심,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섬기며 순종한 결과, 한교섬을 통해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제2회 한교섬의 주제는 “부흥의 첫걸음, 온전한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침체된 한국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기 위해 ‘온전한 제자의 삶’에서 그 첫걸음을 시작하길 바라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제3회 한교섬을 앞두고 다시 우면산 기도의 자리를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목양진심(牧養眞心), 사명전심(使命全心)”이라는 주제를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진심, 하나님께는 전심”이 될 때, 이것이 교회 목양 사역에서는 성도들에게 진심이 되고, 목회자 개인의 사명에는 전심으로 힘을 다하게 돼 순명(順命)이 됩니다. 제3회 한교섬은 8천 명의 목회자들이 시대의 아픔으로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목양진심(牧養眞心), 사명전심(使命全心全意)”으로 새롭게 헌신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한교섬은 목자의 심정으로 목회 현장의 양들을 진심으로 섬기고, 사명에 전심으로 매달려 한국교회와 기독교를 악한 세상으로부터 지켜 내는 ‘거룩한 방파제의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골든타임(golden-time)이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교회는 성소수자 인권법이 통과된 후, 오히려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런 세상의 거대한 도전과 물결 앞에 서있습니다.

‘10.27 한국교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를 앞두고 8천 명의 목회자들이 한교섬에 모인 것은 대한민국을 거룩한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영적 골든타임을 허락해주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거룩한 방파제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교섬은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만나,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통해 스스로 그 일을 이루신 이루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백서는 한국교회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지난 2024년 10월, 역사의 변곡점에서 사랑의교회와 한국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 날에 카이로스의 신적 개입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묵도하며 다시 한 번 그 은혜와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후 2024년 10월 21일

오정현 목사

Chapter

1

한국교회가
희락의 생수가
흘러가는 은혜의
저수지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

인생 10월, 은혜의 강수가 흐르게 하옵소서

- 청계산 산상 구국기도회
- 한교섬을 위한 전교인 금식기도회
- 제22차 가을 글로벌 특별새벽부흥회
- 10.27 한국교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 2025 WE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출범 감사예배

한국교회 섬김의 날의 의의



세계 복음주의 교회의 영적 재건과 부흥을 위해 준비된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

원산대부흥 평양대부흥 백만인구령운동

홀 선교사가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 브라운에게 보내는 편지
“죄가 고백되어지고
죄가 사라지고 있으며,
평화와 기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족대표 33인 중 개신교 16인

남강 이승훈 장로
“오 하나님여,
이 고난과 시험을
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제헌국회

이윤영 목사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량교회 구국기도회

참여 성도 간증
“어느 목사님은 눈물로
범벅되면서 깊게 외치는데
인민군을 압록강까지
짜~악 밀고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영적으로 통했지요.”



빌리그래함 여의도 집회

한국기독교공보
1973년 3월 3일자 2면
“한국교회의 연합운동과
선교활동을 통하여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삶의
길과 희망을 보여주어야겠다.”



빌리그래함 50주년 기념대회

오정현 목사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진리로 하나되어 모든 분열의
영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의 사역과 믿음의
전성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오정현 목사
“하나님의 절대진리를 순종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부흥을 새롭게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2033-50비전’ 성취
|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

▶1903

▶1919

▶1950

▶1973

▶2024/2025

▶1910

▶1948

▶2023



웨일즈 부흥(이반 로버츠)
호주 부흥
인도 부흥
아주사 부흥
만주 및 중국 부흥



에딘버러 세계선교대회
마포삼열 한국선교 보고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
성령을 부어주셨다.
한국이 영적 강대국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기도로 세워진 대한민국
38선 이남에서는
제헌 국회를 구성하고
제정된 헌법에 따라
대통령 이승만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공식적으로 선포



한국전쟁을 위한
세계의 중보기도
1950년 7월 14일
한국의 전쟁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백안관 뜰에서 동료들과
기도하는 트루만 대통령



제1회 로잔대회

로잔 7대 언약
1. 하나님의 목적
2. 성경의 권위와 능력
3.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보편성
4. 전도의 본질
5.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6. 교회와 전도
7. 전도를 위한 협력



우크라이나를 위한 조찬 기도회

워싱턴DC 바이블뮤지엄
오정현 목사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과 민족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크라이나에도
반드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2025 WEA 서울총회 (World Evangelical Alliance)

2025 WE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출범 감사예배
오정현 목사
“2025년 WEA 서울 총회를 통하여 순전한 복음(Evangelical),
살아있는 정통(Orthodox), 개혁된 보수(Conservative)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통해 세계 복음주의교회의
쇠퇴를 막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복음주의
교회 부흥
|
세계선교 마무리



인생 10월, 은혜의 강수가 흐르게 하옵소서!

‘다시 천 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겔47:5)

사랑의교회의 10월 한 달은 ‘인생 10월’이라 부를 수 있는 기념비적인 시간이었습니다. 8월 청계산 산상 구국기도회로 시작된 하반기 사역은 10월에 이르러 ‘전교인 금식기도회’, ‘제22차 가을 글로벌 특별새벽부흥회’, ‘제3회 10.21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통하여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영적인 여정을 통하여 은혜의 강수는 흐르고, 사랑의교회 모든 영가족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골든타임을 깨닫게 하셨고, 한국

교회가 하나되어 기도할 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임재하였습니다. 한국교회는 패배주의와 회의주의를 딛고 일어나 시대를 향해 거룩한 의분으로 절대 진리를 외쳤습니다. 이 역사적인 전환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일을 온 세계 위에 나타내보이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의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사 세계선교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한없이 기름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의교회는 역사의 주류에 서서 이 영적인 재건을 위해 더욱 힘써 전진할 것입니다.



청계산 산상 구국기도회

목양 진심(眞心),
사명 전심(全心)
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온 성도들이 기도용사가 되어 권세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전력을 다해 기도해 매진 할 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자기연민과 패배주의’를 털고 일어나 ‘믿음의 강철신발’을 신고 걸어가는 믿음의 회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칠 지라도 사명을 감당할 능력 주시기를 간구하다 보면 기적적인 결실을 얻을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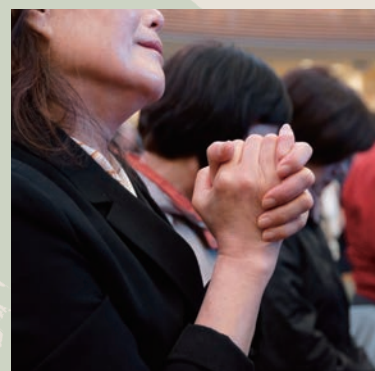
사랑의교회는 2017년 이후 매년 광복절을 기념하며 나라 사랑의 마음을 모아 민족의 진정한 광복인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해 청계산 산상 구국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올해 청계산 산상 구국기도회는 1만 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한국교회에 허락하신 독특한 기도자본으로 한국교회 부흥의 시절 산마다 메아리치던 기도소리를 재현하는 현장이 되었고, 이후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의 포문을 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와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욥2:2)





한교심을 위한 전교인 금식기도회



성령충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금식의 핵심은 내 삶을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통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게 할 때, 그는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죽을 때까지 인도해주실 것입니다.”

10월 첫째 주 온 교회 성도들은 다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온교인 금식기도회로 나아갔습니다. 일주일의 금식기

간 동안 누적교인 총 28,000여 명이 금식에 동참하며 다음세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제천기도동산과 사랑의교회 안아주심의 본당에서 금식기도회에 참여한 성도들이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찬양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온 교회가 영적으로 무장되며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21:30~31)





전교인 금식기도회 개회예배



비전나눔 및 연합 기도회



순장반(제천이원생중계)



전교인 금식기도회 부흥헌신 토비세



제22차 가을 글로벌 특별새벽부흥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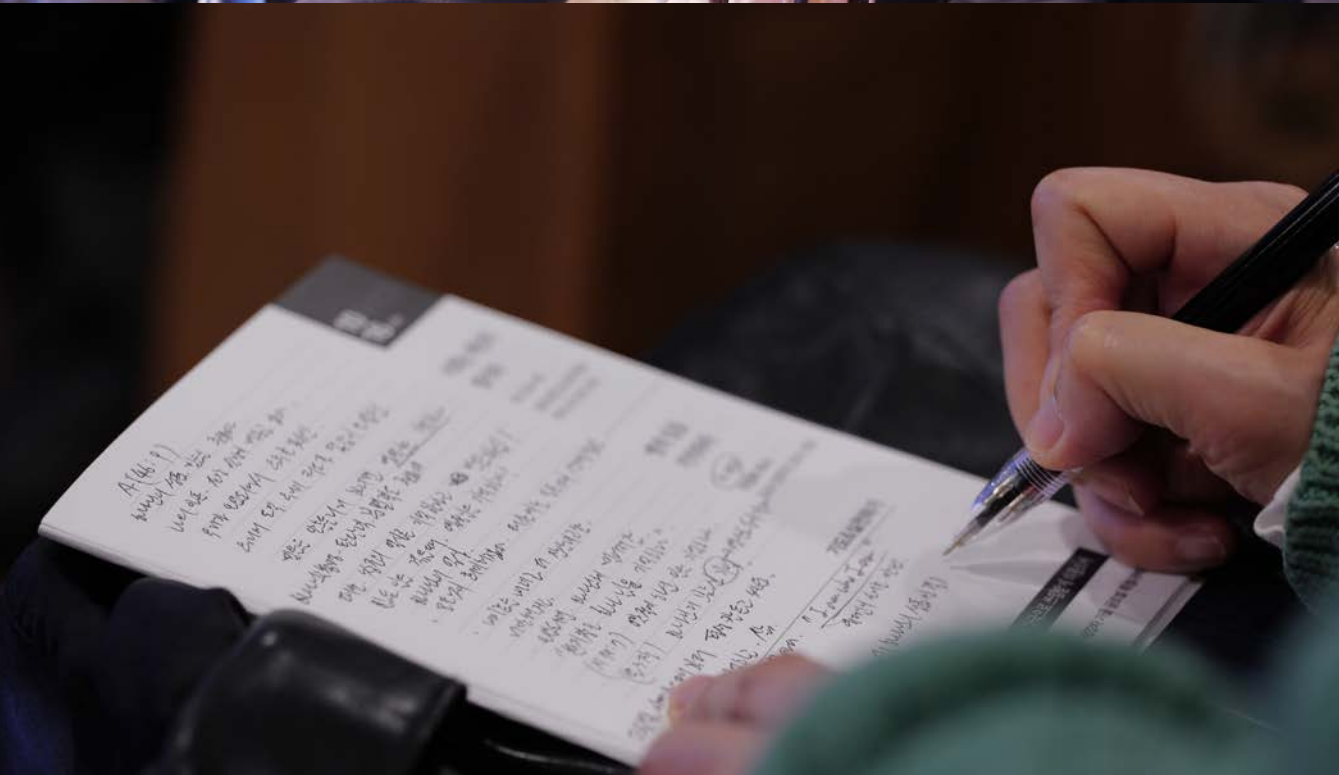


여호와
의
영광이
온
세
상
가
득하리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합2:14)

The Glory of the LORD
Shall Fill the Whole Earth
“우리가 이번 특새의 거룩한 종을 쳐서
민족의 심장을 울릴 때, 갈등의 약육강
식 시대는 끝이 나고, 머리에는 하나님
의 영광이 선포될 것이며, 등에는 견고
한 기도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것이고,
허리에는 믿음의 세대계승으로 영광스
럽고 축복된 평강의 나라를 전수할 것입
니다. 남은 자여, 특새의 종을 쳐서 민족
의 심장을 울립시다!”

올해 제22차를 맞이한 글로벌 특별새벽
부흥회는 금식기도회의 열기로 한층 더
뜨거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의 사명은 순명이 되었고,
영적 전쟁의 기도 대첩에서 먼저 승리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물이 바다 덮
음 같은 여호와와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
함을 경험한 특새를 통해, 사랑의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넘어 전 세계 복음주의를
위한 거룩한 기도의 터로 삼아주시는 하나
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렸습니다.





10.27 한국교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삼상11:14)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순종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부흥을 새롭게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2024년 10월 27일, 한국 교회 140년 역사상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대한민국 복음주의에 속한 모든 교회들은 건강한 가정과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의 심장부에 함께 모였습니다. 서울 시청 앞 광장과 광화문, 송례문, 서울역과 여의도에 이르기까지 현장에 모인 110만 명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였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세속화의 거센 파도를 막는 거룩한 방파제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이 공동개회를 선언하자는 공동대회장 오정

현 목사의 제안에 따라 현장에 참석한 모든 이들은 거룩한 사명자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하며 “한국교회가 하나되어 200만 연합예배 개회를 선언합니다!”를 외쳤습니다.

10.27 연합예배로 인해 한국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분열의 영은 사라지고, 한국교회에 만연했던 패배주의, 회의주의, 세속주의는 무너졌습니다.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의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 거룩한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You shall be a miracle
시청 앞 서울광장



회복
RESTORATION
서울시청 앞



부흥
REVIVAL
여의도



재건
RECONSTRUCTION
광화문



재복음화
RE-EVANGELIZATION
서울역



재헌신
REDEDICATION
송례문 앞







2025 WE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출범 감사예배

교회를
새롭게
세계를
새롭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계21:5)

10.27 한국교회 연합예배 및 큰 기도 회를 통해 한국 사회에 불어온 창조 질서와 성경적 가치 수호의 거룩한 바람은 세계교회의 영적 대반전을 위한 영적인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2024년 11월 15일 ‘2025 WEA 서울총회’를 위한 조직위원회 출범 감사예배를 드리고, 세계복음주의연맹(World Evangelical Alliance) 서울총회의 의미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는 하나님의 주신 지상 명령은 큰 지상명령(Great commission)임을

강조하며 큰 사명과 큰 그림과 큰 비전을 갖고 있으면 그 자체가 정화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한국교회가 세계복음주의교회와 하나가 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50%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2033-50 비전’을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2025년은 WEA 서울총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 세계복음주의교회의 쇠퇴를 막고 영적 재건을 이루는 거룩한 대반전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2025
SEOUL
WORLD EVANGELICAL ALLIANCE

주후 2024년 11월 15일(금)

세계복음주의연맹(World Evangelical Alliance) 서울총회의 의미

“교회를 새롭게 세계를 새롭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계 21:5)

1. WEA는 현존하는 세계 최대, 최고(最古)의 복음적 기독교 연합체이다.

- WEA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과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인본주의적 이성 숭배가 창조 질서와 성경의 절대 권위를 거세게 공격하던 19세기, 복음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1846년 영국에서 시작한 기독교 연합체이다.

- 현재 전 세계 146개국에 143개 연합기관을 두고 있으며, 산하에 약 6억 명에 달하는 복음주의 신자들이 속해 있는 세계 최대, 최고(最古)의 복음적 기독교 연합기구다.

- WEA는 신학적 연구 집단이나 교단이 아닌, 복음 전파와 선교, 구제를 목적으로 사역하는 연합체이다.

- 한국에서는 이전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해 왔고 총회 유치를 결의했던 바 있으며, 한국복음주의협의회는 아시아복음주의연맹을 통해 지금까지도 협력하고 있다.

2. WEA의 핵심 가치는 Evangelical(복음), Orthodox(정통), Conservative(보수)이다.

- WEA는 Evangelical(복음), Orthodox(정통), Conservative(보수)를 핵심 가치로 여긴다. 첫째, 전 세계에 복음을 확산하고, 둘째, 복음의 가치를 수호하며, 셋째 신자 간의 교제를 강화함으로써 복음의 순수성을 굳건히 지켜내고 있다.

3. WEA는 WCC와 전혀 다른 연합체이다.

- WEA는 복음주의에 뿌리를 둔 교회들의 연합체로서 영혼 구원을 최우선 목표로 하며, 복음전파와 교회의 대사회적 책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강조한다. 성경에 근거한 회심을 선교의 궁극적 목적으로 삼기에 사회 구원론이나 다원주의적 입장에 반대한다.

- 이와 다르게, WCC는 초교파적 교회 협의체로 포괄적이고 다양한 교단과 교회의 협력을 통해 세계 모든 교회의 일치를 목표로 하며, 사회 변혁과 평화 중진을 주요 과제로 삼는다. WCC의 접근 방식은 보편 구원설 성격을 지니며, 구원 사역을 사회 전체의 변혁으로 확장하려는 사회 구원론적 특성을 띤다.

- WEA 사역의 목적은 단순한 포용이나 협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와 진리 수호에 있다. WEA가 다른 교단이나 비기독교 신앙 전통과 대화 및 협력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접근이지, 결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한 구원의 믿음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다.

4. WEA는 종교 다원주의, 무신론적 공산주의 사상, 로마 가톨릭 신학,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 반대한다.

- 2019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총회에서 동성애가 성경적 관점에서 죄라는 복음주의적 입장을 확인하고, 타협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재확인했다. WEA는 2024년 파리 올림픽과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하여 성 정체성 문제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공개적으로 명확히 밝혔다.

- 현재, 전 세계 거대 기독교 연합기구 중 LGBTQ와 종교 다원주의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는 단체는 WEA가 유일하다.

5. WEA는 UN 인권위원회와의 공식 채널을 통해 종교의 자유와 인권 보호를 국제사회에 강력히 호소한다.

- WEA는 UN 인권위원회의 공식 채널을 확보함으로써 선교사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현재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들을 위한 구명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는 한국교회가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남북통일을 위해 기독교적 입장을 대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6. WEA는 제자훈련을 통해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

- WEA는 2019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총회에서 “향후 10년간 제자훈련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세계 선교 환경 속에서 복음주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사명과 사역 방향성을 제시했다.

7. WEA 서울총회 이후, WEA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거룩한 방파제가 될 것을 기대한다.

- 한국교회가 WEA와 함께 유럽 재복음화와 세계선교에 크게 기여하게 되면, 그 선교적 복음의 은혜가 한국교회 부흥을 지속시키고 한국교회를 성찰시킬 영적 역량이 될것이다.

- 2024년 10월 27일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이후 한국 사회에 불어온 ‘창조 질서와 성경적 가치’ 수호의 거룩한 바람이 2025년 10월 WEA 서울총회를 계기로 전 세계에 확산되고, 동시에 WEA 네트워크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거룩한 방파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 WEA총회(General Assembly)는 6년마다 한 번씩 개최된다. 지난 제14차 총회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렸으며, 내년 서울총회는 제15차이다.

49



2022년 제1회 9.26 한국교회 섬김의 날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2022년 제1회 ‘9.26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코로나 팬데믹의 긴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정현 목사는 한국교회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뜨거운 형제애를 나누고 위로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충전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주여!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 초막절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과 함께 강단기도회로 준비된 ‘9.26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총 5,596명이 함께 모

인 기적의 현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의 슬로건 아래 모인 목회자와 사모들은 회복과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고, 무너진 곳을 새롭게 수축하며 재건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제2회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

부흥의 첫 걸음, 온전한 제자의 삶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를 향한 신묘막측한 은혜는 한국교회 현장을 차고 넘치게 하여 2023년 제2회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로 이어졌습니다. '한국교회 섬김의 날'에 대한 소문이 각종 SNS와 유튜브(YOUTUBE), 블로그(BLOG)를 통해 전세계 한인 교회와 디아스포라 공동체에까지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바람이 사랑의교회 온 성도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고, 다시 한 번 "우리가 섬기자"라는 순종의 마음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모집이 시작된지 5일 만

에 6,000명 모집 인원이 마감되었고, 이후 참가 문의가 쇄도하여 1,000명의 참가자를 추가로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부흥의 첫 걸음, 온전한 제자의 삶"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꺼지지 않는 부흥의 불길을 열망하는 이들에 의해 시작된 '은혜의 영광'이었습니다. 참석한 목회자와 사모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되기로 결단하였고, 한국교회의 기도자본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50%가 구원을 받게 되는 '2033-50 비전'을 향해 부흥의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2024년 제3회 10.21 한국교회 섬김의 날

목양진심(眞心) 사명전심(全心)



2024년 제3회 ‘10.21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모집을 시작한지 17시간 만에 7,000명이 마감되며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향한 한국교회의 간절한 소망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참가 신청을 하기 위해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많아 1,000명을 더 모집하여 총 8,000명의 인원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시기에 ‘10.21 한국교회 섬김의 날’ 모인 목회자와 사모들과 신학생들은 절대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고, 그 기도는 안아주심의 본당에서 ‘천장을 울리는 기도’, ‘천국의 물소리 같은 기도’가 되었습니다. 사랑의교회의 ‘전교인 금식기도회’와 ‘제22차 가을 글로벌 특별새벽부흥회’를 통해 전교인의 기도로 준비된 ‘10.21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제자훈련 2.0’으로 새롭게 무장되는 시간이었으며,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를 앞두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회복과 대한민국의 영적 재건을 위해 사전에 벌어진 영적 전투의 현장이었습니다. 신적 개입의 역사 안에서 한국교회의 영적 유산을 계승한 목회자들은 영적 기백으로 승리의 깃발을 들고 이미 한국교회의 영적 대반전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2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의 함대를 띄우게 하여
주옵소서!



牧養眞心

목양진심
Sincere-hearted Pastoring

개회에배
전체 특강
사역의 비밀병기 <제자훈련 2.0>
섬김의 날 특별(Gala) 공연
산상성령집회

개회예배

Much better than I deserved!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롬5:2)

“한국교회 부흥할 때 영감과 능력과 냄새가 솔솔 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면
한국교회 변화되는 것입니다. 선명한 절대진리가 확인되어 복음의 전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안아주심의 본당에 가득찬 목회자와 사모들의 열기로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시작되
었습니다. ‘WAY MAKER’ 찬양 영상과 웨키나 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된 개회예배
는 첫 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과 깊은 감사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다함
게 기립하여 ‘창조의 아버지’를 부를 때, 간절한 소망으로 큰 능력으로 이 땅을 치유
하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였습니다. 포에버 찬양대의 ‘아름다
운 우리 교회’와 사랑의교회 교역자들과 장로들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의 특
송은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사모하는 향기로운 찬양이 되었습니다.





오정현 담임목사는 <절대 진리의 귀환을 위하여>(롬5:1~11)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 능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능력이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참석한 목회자들은 사역의 모든 짐이 벗겨지고 희락의 생수가 흘러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복음의 능력 때문에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온 세상 위하여’를 함께 찬양하며 절대진리의 귀환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명을 다시금 확신하였습니다.



전체 특강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요삼1:4)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세대가 사역과 선교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 악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줘야 합니다.”

전체 특강은 현재 다세대 교회가 직면한 도전을 깨닫고, 교회의 다음세대를 품고 연합을 이루어야 할 목양진심을 깊이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다세대 교회가 직면한 도전들>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강의에서 브라이언 채플 목사는 다음세대가 겪는 도전과 사명에 대해 설명하며, 다음세대가 믿음을 계승할 수 있도록 힘써 도와야 한다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사탄은 문화적, 정치적 양극화로 세대를 분열시키려 하지만, 성령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어둠 속에 빛을 비추고 계심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으로 연합된 믿음의 공동체이며,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임을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역의 비밀병기 <제자훈련 2.0>

제자훈련은 영원한 것을 위해 인생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좋습니다”
고백하면 복락과 희락의 강수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10.21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제자훈련 2.0> 교재가 처음으로 공개된 시간이었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과 '찬양 성부 성자 성령'을 함께 찬양하며 시작된 이 시간에 오정현 담임목사는 2천 년의 교회 역사에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답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 안아주심의 본당을 가득 채운 목회자들과 사모들은 큰 소리로 “좋습니다” 화답하였고, 사역의 모든 짐과 상처와 고통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정현 담임목사는 대한민국의 50년대는 '피의 역사', 70~80년대는 '땀의 역사', 9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갈등의 역사'임을 말하며, 갈등과 분열의 현재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다음세대의 믿음 계승을 위하여 제자훈련 교재가 새롭게 집필된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제자훈련은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냐'는 질문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인생을 투자하지 않고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 함을 깨닫게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목회자들은 우리 주님이 영원하며, 주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하기에 주님을 인격적 실체로 경험하며, 말씀으로 인격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 한 사람 한 영혼을 영적으로 무장시켜 재생산하게 하는 것이 곧 제자훈련의 핵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섬김의 날 특별(Gala) 공연

진정한 마음의 쉼과 회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서 비롯됩니다!

한국교회 섬김의 날 목회자들을 위해 열린 특별 공연은
사역으로 지친 마음을 회복하고 쉼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교회 김재원 장로(KBS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갈라(Gala) 공연은 조성환 목사의 지휘와 사랑의교회 연합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소프라노 이해원,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의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방금 들린 그대 목소리>, 윤학준의 <마중>, 에드바르 그리그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운영의 <시편23편: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김재훈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율구의 <믿음의 고백>, 윌리엄 게이더의 <힘한 십자가 능력 있네> 등 대중들에게 익숙한 노래와 찬양으로 진한 감동을 전해주었습니다.





또한 찬양사역자 강한별이 장진숙의 <광야를 지나며>, 손경민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노래하며 진정한 마음의 심과 회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서 비롯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목양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주셨습니다.



산상성령집회

기도의 함대를 띄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불이 떨어지게 하셔서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 향후 10년 뒤, 20년 뒤에 대한민국 교회의 장래가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전력투구하여 기도의 함대를 띄울 때 민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천장을 울리는 기도’, ‘천국의 물소리 같은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함대를 띄우게 하여 주옵소서!”

산상성령집회는 성령의 큰 기름부으심 가운데 기도로 영적 대반전을 이루어낸 시간이었습니다. 오정현 담임목사가 기도회를 이끌기 위해 강단 위에 섰을 때, 이미 성령께서는 참석한 8천의 목회자들의 심정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강력한 임재 가운데 기도회를 이끌어가셨고, 오정현 담임목사의 인도의 따라 진행된 기도회는 식지 않고 타오르는 기도의 열기로 안아주심의 본당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하늘의 불로써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를 찬양하며 “내 속에 끓어오르는 정결케 하는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대한민국의 영적 지형도는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목회자들과 사모들과 신학생들은 교회를 위해, 사역의 열매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 부르짖은 목회자들은 찬란한 역사를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용장으로 변화되었고, 새 마음과 새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는 8천의 기도용사들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산상성령집회 기도제목

1. 한국교회 분열의 영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쫓대를 옮기지 말아 주옵소서!
절대진리로 하나되게 하여 주옵소서!
2. 성령이여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사역에 열매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3. 내 속에 끓어오르는 정결케 하는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염된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4. 10.27이 인천상륙작전이 되게 하사 하늘문이 열리고,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3

한국교회가 절대진리의
귀환을 위해 십자가의 사명을
짊어지게 하옵소서!



使命 全 心

사명전심

Whole-hearted Mission

사랑의교회의 비밀병기 : 창목회

사명의 비밀병기: 트랙별 강의

목양의 비밀병기: 순장반

파송예배

사랑의교회의 비밀병기 : 창목회

목회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창목회가 열정과 지혜로
창조적 사역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골1:29)

창목회는 사랑의교회 120여 명의 목회자들이 매주 화요일 아침 7시에 모여 말씀과
비전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한국교회 섬김의 날 현장에서 진행된 창
목회는 하나님께서 창조적 사역을 감당할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령
이여 강림하사’ 찬양은 한국교회 섬김의 날에 참석한 목회자들 가운데 마가의 다락
방이 재현되기를 사모하는 간절한 고백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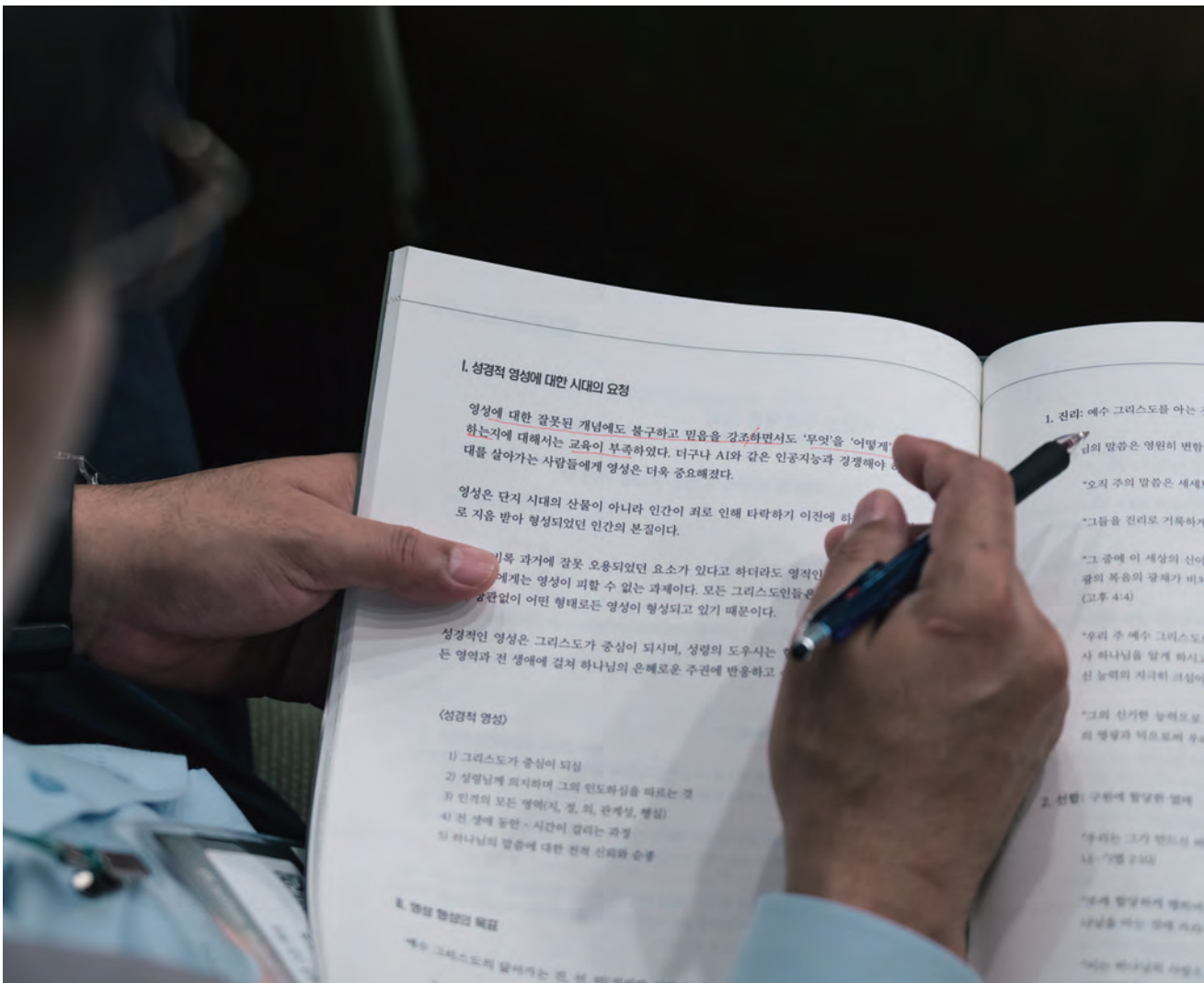
“우리의 최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The Best is not Come! 우리들의 인생과 사역이 주님 만나는 그 날 최고의 절정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목회, 언제나 신선한 목회, 시작과 끝이 Finish and Start 분명한 목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있는 목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정현 담임목사는 골로새서 1장 24~29절의 말씀을 통해 사역자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과 지혜로 창조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사역의 시작과 끝이 분명해야 하며, 사역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회방향과 비전을 향한 조율(Attunement), 은사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Assignment),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정렬(Alignment), 서로에 대한 평가(Assessment)가 잘 이루어져야 함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처럼 한국교회 섬김의 날 창목회는 사명전심으로 나아가기 위한 사랑의교회의 기초를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명의 비밀병기: 트랙별 강의

영적인 성공을 위해
사역의 비밀병기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10.21 한국교회 섬김의 날 트랙별 강의를 통해 사명의 비밀병기는 각 강의를 선택한 참석자들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었고, 사역의 병참기지를 통해 영적인 원리와 실제적인 적용으로 무장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려한 전도를 위하여
손헌보 목사



손헌보 목사(세계로교회)는 <미려한 전도를 위하여> 강의를 통해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생생한 간증으로 전하였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반응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믿게 된 사실을 확인하며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할 것을 강의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중심의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브라이언 채플 목사



브라이언 채플 목사(커버넌트 신학교 명예총장)는 강의를 통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성경신학을 설교에 적용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본문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정점이며, 궁극적인 진리와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설교할 때,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더 큰 사랑으로 참된 순종에 이르게 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현대의 이데올로기들과 기독교적 답변
전광식 교수



전광식 교수(前 고신대 총장)는 <현대의 이데올로기들과 기독교적 답변> 강의를 통해 현대문명은 변영의 시대이며 동시에 야만의 시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특별히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의 문화 마르크스주의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신 마르크스주의(Neo-Marxism)의 영향에 맞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시대에 대한 영적 분별력과 변하지 않는 진리로 시대에 대한 제사장적 책임을 감당하고 복음적 삶을 통해 세상을 변혁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도전하였습니다.

한국교회 재정의 건전성 및 컨설팅
황호찬 선교사



황호찬 선교사(탄자니아 선교사, 前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모임임을 강조하며 유형교회가 성도, 장소, 재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의 재정을 청지기적 관점에서 관리해야 하며, 하나님과 교회와 사회에 대한 목회자의 3중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 교회 회계 정보의 투명성으로 교인 및 지역사회의 신뢰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어떻게 성경적 영성을 형성할 것인가?
윤난영 사모



윤난영 사모(사랑의교회)는 성경적 영성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며, 성령의 도우시는 힘을 의지하여 인격의 모든 영역과 전 생애 걸쳐 하나님의 주권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와 구원에 합당한 열매로써의 선행과 믿음과 행함의 일치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추구하고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인 은혜와 진리를 알기에 힘쓰는 시간이 있을 때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음에 깨닫고 큰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린이를 통한 교회 부흥원리
이수훈 목사



이수훈 목사(당진동일교회)는 <어린이를 통한 교회 부흥원리>의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원리에 따라 다음세대 우리의 후손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기억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며, 말은 바를 말과 행동으로 책임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사명을 따라 살아갈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목양의 비밀병기: 순장반

순장반은 다락방이
영적 변화의 산실이 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며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단9:17)

순장반은 사명전심으로 나아가기 위한 사랑의교회 목양의 비밀병기입니다. 여순장반, 남순장반, 여직장인 순장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히 매주 화요일 오전에 진행되는 여순장반은 목회자와 순장들이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로 무장되어 다락방의 부흥을 함께 꿈꾸는 시간입니다.





10.21 한국교회 섬김의 날, 참석한 목회자들은 실제 진행되는 여순장반을 참관하며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이 평신도 지도자인 순장들에게 공유되는 것과 귀납적 소그룹 성경공부를 진행하기 위해 다락방 교재를 준비하는 실재를 체험하였습니다. 오정현 담임목사는 순장반은 다락방이 영적 변화의 산실이 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핵심적인 시간이며, 사랑의교회가 지난 46년간 진행해온 귀납법적 성경공부와 삶을 나누는 소그룹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순장반의 시간은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사명전심으로 나아가기 위해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인 순장들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한 방향으로 정렬되어야 할 필요성을 몸소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파송예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는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엡1:21~23)

제3회 한국교회 섬김의 날,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파송예배는 영적 승리의 현상이었습니다.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의 찬양으로 시작된 파송예배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사명’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정현 담임목사는 에베소서 1장 21~23절의 본문을 통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은 교회가 영광스러운 곳임을 의미한다고 강조하며, 교회의 강력한 토대를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설교하였습니다. 파송예배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의 찬양을 부르며, 끝까지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그로 인해 한국교회의 역사가 새롭게 집필되길 고백하였습니다. 8천 여 명의 목회자들과 사모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찬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기념하고, 이후 사명헌신서약을 통해 사명 받은 자로서의 영적 기백과 전투력을 가지고 ‘온 세상 위하여’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복음 전파에 헌신할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교회는 지상에서 절망을 알지 못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은상가은(恩上加恩)의 은혜는 오직 교회만이 줄 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교회가 영광스럽다는 뜻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 진지를 구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해내고,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면 한국교회의 역사는 새롭게 집필될 것입니다.”

파송예배 후에는 은보혜강상 시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상은 교회부문 수상교회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을 계승하여 제자훈련 목회를 실천한 전주새중앙교회(홍동필 목사 시무)에 주어졌습니다.

은혜 나눔의 시간은 사랑의교회 성도들이 자원하여 헌신한 물품들이 공유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추첨을 통해 물품들이 나누어질 때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목회자들과 사모들은 진심으로 서로를 축복하였습니다. 스타리아에 당첨된 한 목회자는 차량이 더 필요한 교회에 이를 양보를 하였고, 이후 차량을 지원받게 된 목회자와 함께 기쁨을 나누며 안아주심의 본당은 천국적인 삶이 실현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10.21 한국교회 섬김의 날 파송예배는 승리의 깃발을 들고, 한국교회의 영적 대반전을 향해 진군하는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제3회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신적 개입의 역사를 목도한 날로, 한국교회의 영적인 유산이 계승되며 부흥을 향해 전진하는 역사적인 날로 우리 모두의 기억속에 남게 될 것입니다.





Chapter

4

한국교회가
세계교회를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현장화보

제3회 한국교회 섬김의 날 통계

언론보도

축하메세지

은혜보고(참가자 인터뷰)

믿음보고(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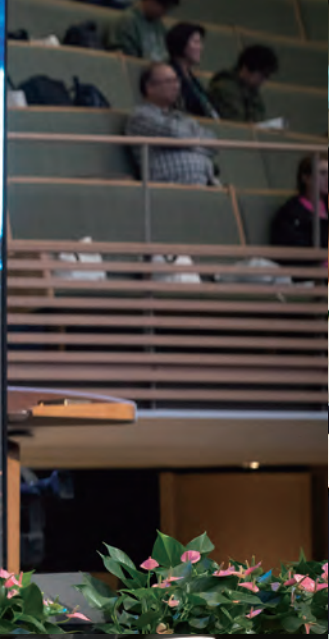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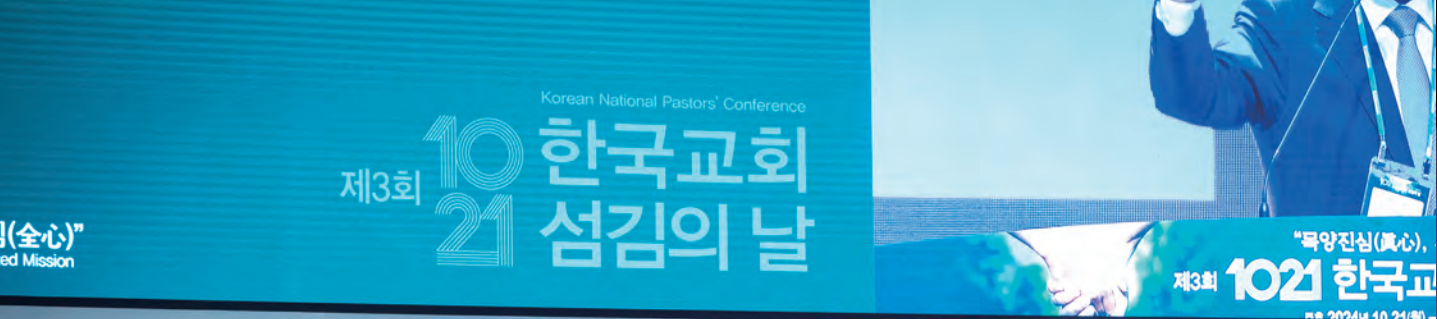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특송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사랑의교회 교역자 & 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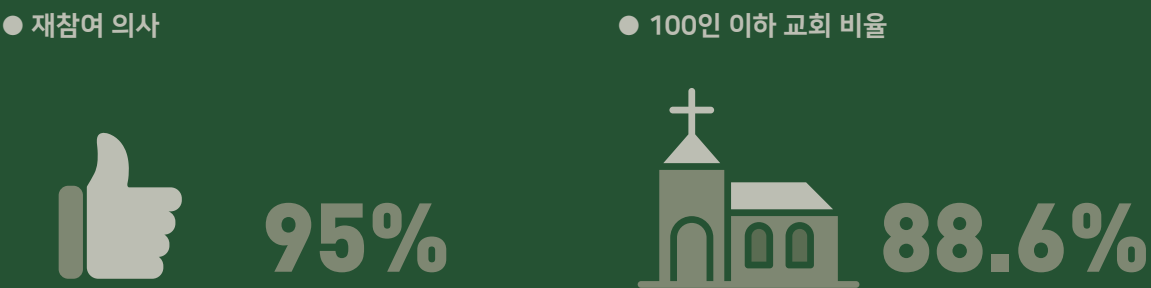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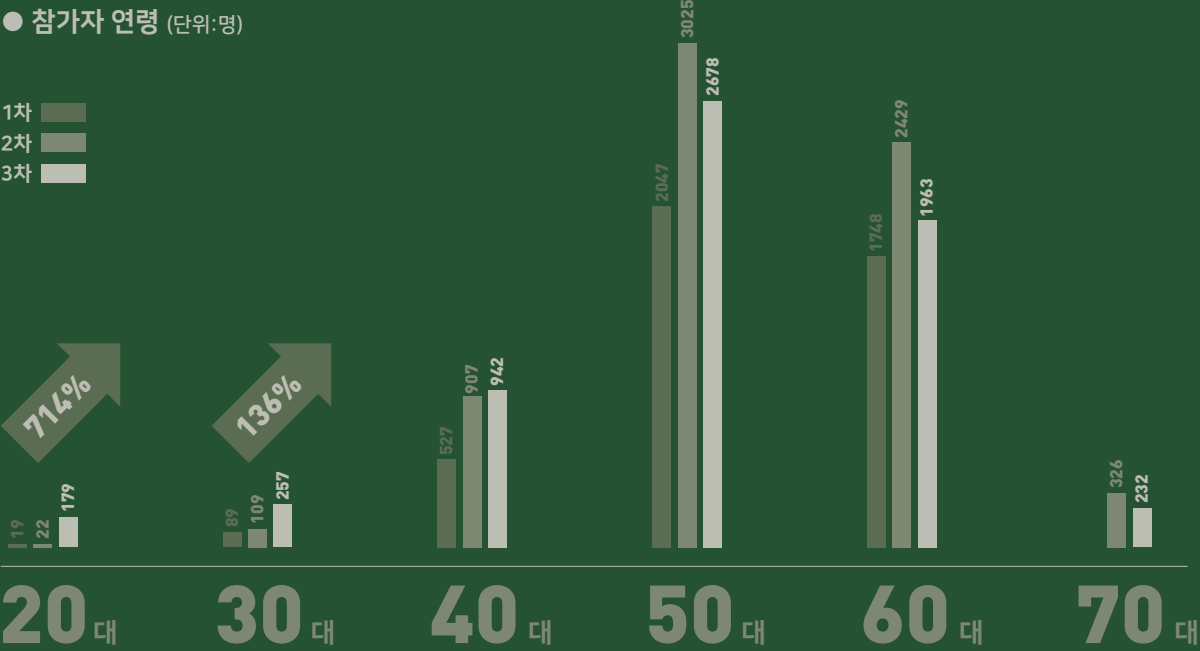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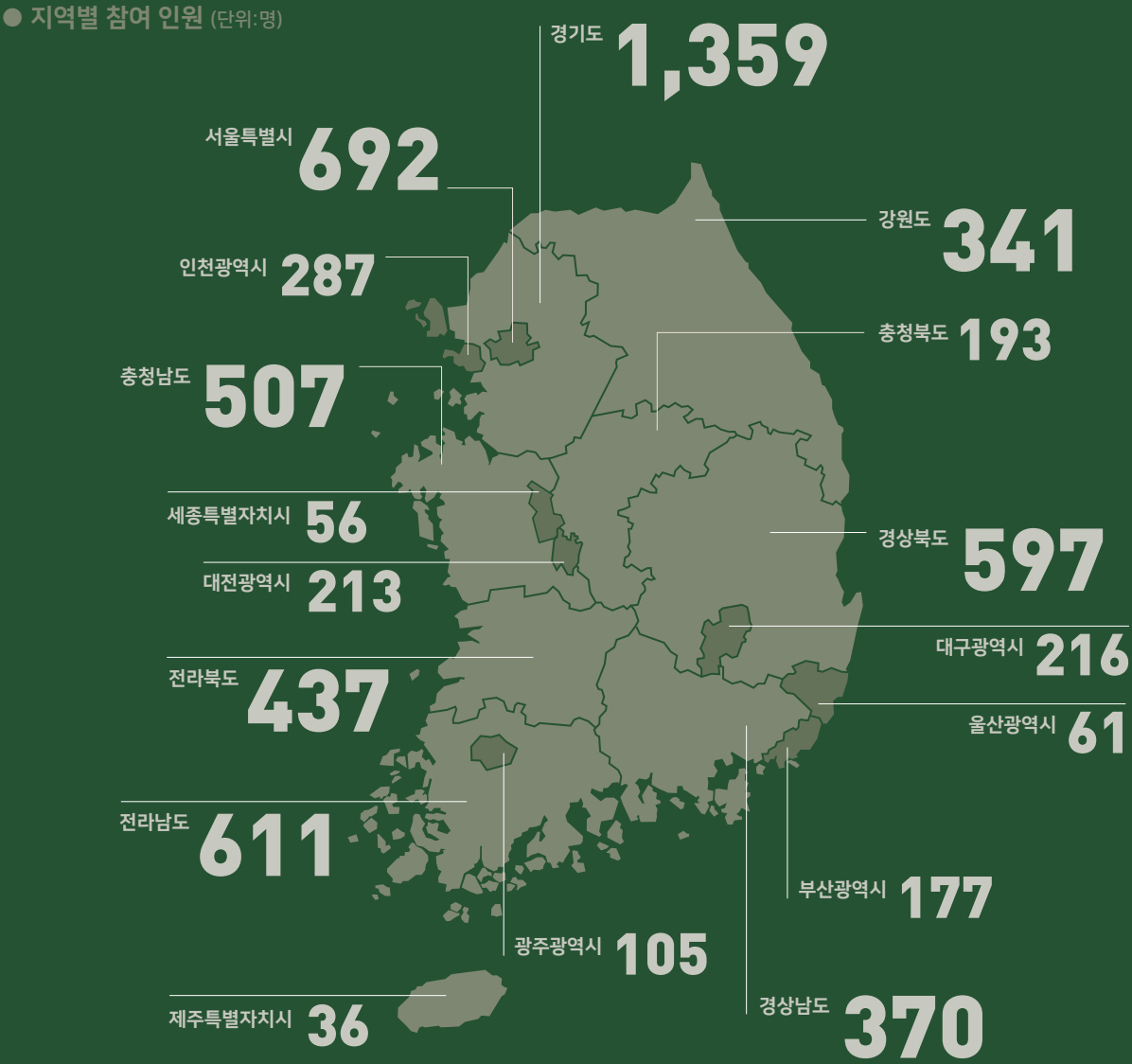
Korean National Pastors' Conference
제3회 10 한국교회
21 섬김의 날

“목양진심(真心), 사명전심(全心)”
Sincere-hearted Pastoring, Whole-hearted 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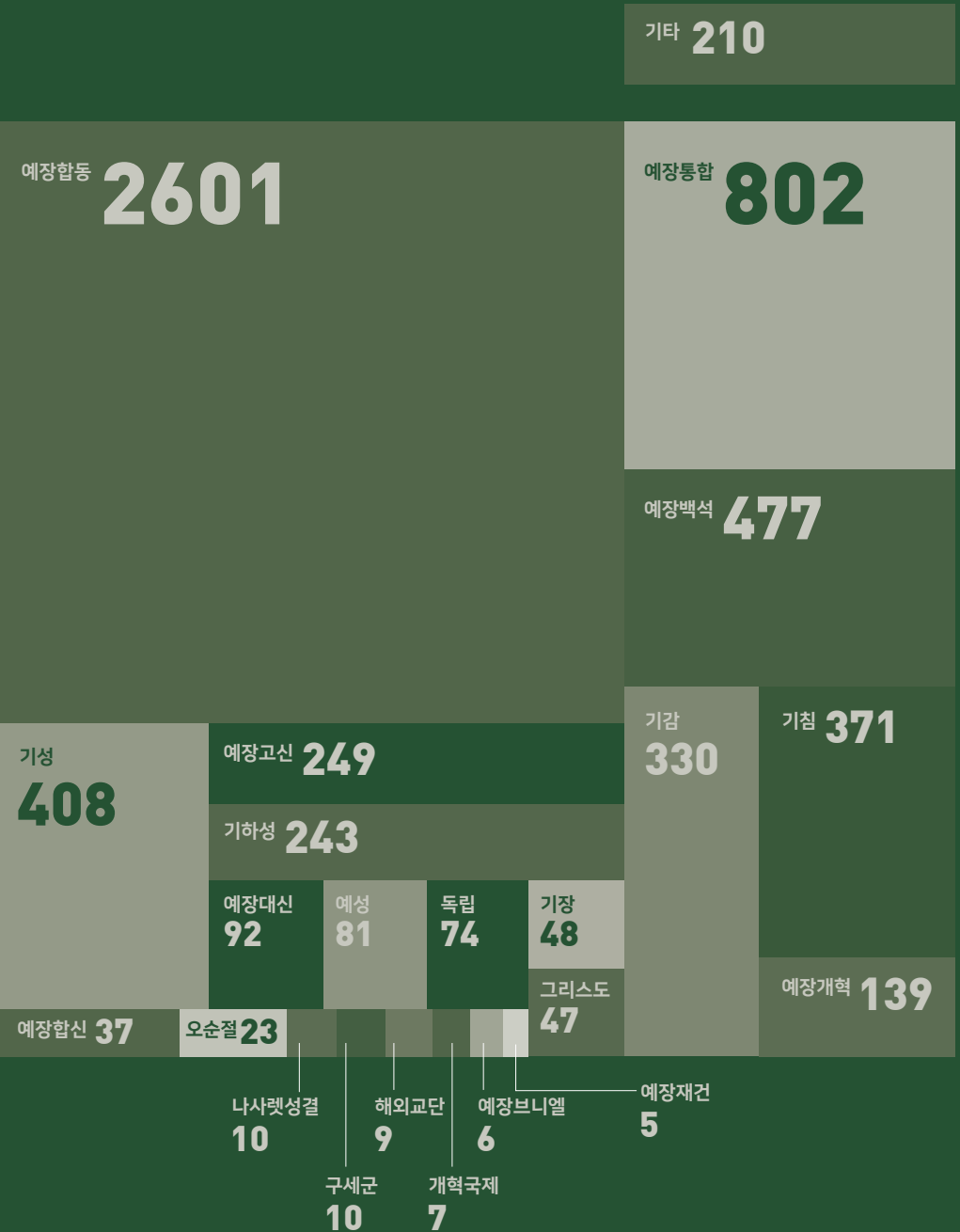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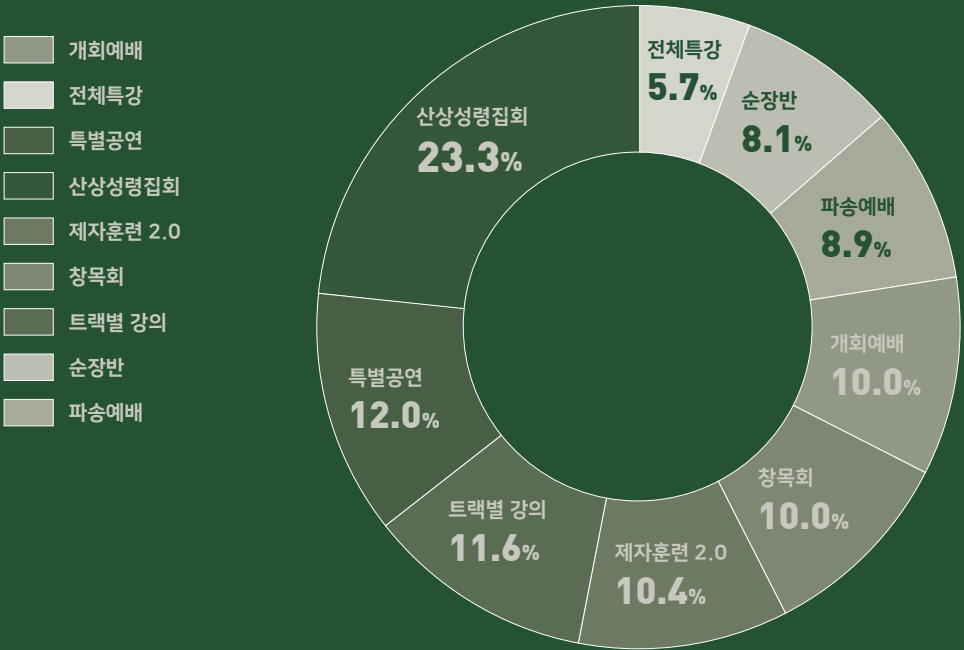




● 목회자 교단 분포



●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



● 참석 전후 행사 기대감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힘을 내는 일들을 통해,
2033년까지 한국교회 복음화율
50%를 이루겠다는
꿈이 이뤄지길 소망합니다.

국내 _ 가나다순



사랑의교회가 개최하는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 올해에도 열리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국교회를 섬기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힘을 내는 일들을 통해, 2033년까지 한국교회 복음화율 50%를 이루겠다는 꿈이 이뤄지길 소망합니다.

김상복 | 할렐루야교회 원로목사



'10.21 한국교회 섬김의 날'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한국교회를 섬기시는 모습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참석한 모든 분들이 힘을 얻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금 부흥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김장한 | 극동방송 이사장



'제3회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맞이하여, 사랑의교회와 모든 한국교회 목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사랑의교회가 진심과 전심으로 준비한 이날을 통해 한국교회에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8천여 명의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복음의 능력으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김종혁 |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장(제109회기)



'10.21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갖는 사랑의교회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어느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한국교회 희망이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한국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식지 않고 변하지 않는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김진홍 | 두레수도원 원장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멋지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년 섬김의 날을 기획하시고 최선을 다해 섬기시는 오정현 목사님과 사랑의교회 영가족들의 헌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 섬김의 날'에 함께하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할렐루야!

백동조 | 목포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제3회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축하합니다. 먼저 이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신 사랑의교회 성도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사역자분들의 한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한국교회가 주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하고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재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송태근 | 삼일교회 담임목사



사랑의교회 ‘제3회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을 때, 사랑의교회가 섬김의 제물을 자처하고 섬김의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이 섬김의 날로 인해 우리는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들이 거대한 십자군이 되어 일어나는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그 위대한 기적의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동원 | 지구촌 목회리더십센터 대표



‘제3회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되새기며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소망의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존경하는 오정현 목사님과 사랑의교회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이영훈 |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사랑의교회에서 진행하는 ‘제3회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함께하시는 모든 분과 전국의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성령 충만할 때 산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마다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장경동 | 중문교회 담임목사



어느덧 세 번째 맞는 ‘한국교회 섬김의 날’에 대해 세 가지의 의미 부여를 통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섬김은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닮은 일입니다. 둘째, 우리는 사람들에게 대한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의 섬김을 두고 가장 크게 기뻐하실 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름다운 섬김으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전광식 | 고신대학교 총장, 독수리학교 이사장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만민을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모든 크리스천은 당연히 형제를 섬겨야 합니다.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정하고 섬김의 모범을 보이는 사랑의교회에 박수를 보냅니다. 더욱 크고 깊게 섬기셔서 하나님의 자라미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성진 | 거룩한빛광성교회 설립



사랑의교회가 한국교회를 섬기며 목회자와 사모님들을 위로하는 귀한 행사를 주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목양진심, 사명전심”이라는 주제로,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수고해 주신 사랑의교회와 오정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참석한 모든 분들께 큰 축복을 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최병락 |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목사



오정현 목사님은 제자훈련의 목회를 본질로 삼고 끊임없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목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시대적 사명과 세대적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수많은 목회자와 사모님들에게 꿈과 도전을 주는 놀라운 사역입니다. 앞으로도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 영광스럽게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최홍준 | 국제목양사역원 원장



‘한국교회 섬김의 날’에 오신 귀한 동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며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교회의 여러 형편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복되고 귀한 만남이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한 분 한 분의 영혼에 새 소망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화중부 | 남서울교회 담임목사



할렐루야! ‘제3회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준비하신 존경하는 오정현 목사님과 사랑의교회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천국 잔치를 맛보는 날이 아닐까 합니다. 이 귀한 자리를 준비해 주신 오정현 목사님과 사랑의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날로 더하여 제3회가 10회, 100회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감경철 | CTS 회장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따라 올해도 변함없이 사랑의교회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 열리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기쁩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도약대가 되어, 한국교회와 사회에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빕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을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길 빌며, 귀한 행사에 마음 깊은 축하를 보냅니다.

김운용 | 장신대학교 총장



올해도 어김없이 사랑의교회는 전국 각지의 목회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큰 잔치,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마련했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한교섬이 주님 기뻐하실 천국 잔치로 자리매김하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오 | CBS 사장



사랑의교회는 한국교회의 종갓집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랑의교회는 사랑의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에 많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한국교회 섬김의 날’입니다. 올해는 신학생들도 참여하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게 되니 무척이나 기쁩니다. 이번 한교섬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박성규 | 충신대학교 총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입니다.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제3회 ‘10.21 한국교회 섬김의 날’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뜻깊은 시간을 준비해 주신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목양진심, 사명전심”이라는 주제의 마음을 다시금 깨닫고 사역하는 곳에서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세훈 | 서울특별시장



‘제3회 한국교회 섬김의 날’ 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님을 비롯하여 행사에 참석하신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께도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교회가 미래와 21세기 교회의 사명에 대해 깊이 있는 목회적 통찰을 얻고, 한국교회의 연합과 부흥을 다시 한번 이끌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0.21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맞이하여, 사랑의교회와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섬김의 날을 통해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새롭게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 있게 전해져 많은 영혼이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과 사랑의교회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봉관 | 국가조찬기도회 회장



‘제3회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맞아, 이렇게 한마음으로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한국교회는 어려운 시기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더욱 큰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범식 | 숭실대학교 총장



‘제3회 한국교회 섬김의 날’ 행사를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신 오정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국교회를 섬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교회의 귀한 섬김으로 한국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다시 영적으로 뜨겁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장종현 | 백석대학교 총장

해외 _ 알파벳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 가족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제3회 한국교회 섬김의 날’에 대해 듣고 매우 감격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실천해야 할 때임을 확신합니다. 이번 섬김의 날에 참석한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계속해서 힘내시길 기도드리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칩 잉그램 (Chip Ingram) | Living on the Edge 대표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위해 모이신 모든 분께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이 시대에도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 나라와 전 세계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때에 새롭게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번 집회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덕 버셀 (Doug Birdsall) | 로잔 총재



저는 사랑의교회에서 열리는 ‘제3회 한국교회 섬김의 날’ 소식을 듣고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엘리사가 선지자들을 모았던 그때가 떠오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끼를 물에서 건지시듯 선지자들의 짐을 덜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짐을 덜어주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게리 호그 (Gary Hoag) | 미국 복음주의교회 재정책임위원회(ECFA) 국제 자문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격려하고, 오정현 담임목사님께서 준비하신 이 훌륭한 집회에서 큰 축복을 나누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드리며, 저 또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줄리어스 김 (Julius Kim) | TGC 대표,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



이번 ‘제3회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예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임을 보여주는 귀한 기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모인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그분의 종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마음들이 새롭게 되고 하나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축복이 임하길 기도드립니다.

마이클 리브스 (Michael Reeves) | 영국 유니온신학교 총장



‘제3회 한국교회 섬김의 날’에 참석하시는 여러분께 문안드립니다. 8천여 명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번 집회에 모여 서로 교제하고 축복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소식을 듣고 저 또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 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 6:9).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마이크 틴달 (Mike Tindall) | 런던 왕의교회 담임목사



오늘날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목회자들의 헌신과 연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모임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 됨과 깊은 격려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새로운 비전과 도전을 발견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한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늘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미첼 리 (Mitchel Lee) | 미국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 담임목사



함께 모인 8천여 명의 목회자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과 격려를 얻고,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특별한 집회를 주관해 주신 사랑하는 오정현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역과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피터 릴백 (Peter Lillback) |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총장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통해 새로운 힘과 위로와 도전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어 주시는 은혜로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한 분 한 분을 섬기시는 사랑의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류응렬 | 미국 와싱턴중앙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주님께서 사랑의교회를 통해 각처에서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천국 사랑을 베푸시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그 영광을 찬송하며 주 앞에 엎드려 부르짖을 때, 주의 종들을 일으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성전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박신일 | 캐나다 그레이스한인교회 담임목사



제3회 ‘10.21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통해 “목양진심, 사명전심”이라는 주제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이 불어, 목양에는 진심으로, 사명에는 전심으로 매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뤄지는 그날을 소망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노창수 | 미국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 저희에게는 은혜였습니다.

제3회 한교섬을 마치며 / 윤은미

이제 갓 개척한 교회로서 이번 한교섬을 통해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오정현 목사님에게서 느껴지는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과 진심이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제자 삼는 일에 전념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더 충성하며 섬기리라 결단하며 감사함으로 마칩니다. 준비해 주신 오정현 목사님과 사랑의교회와 섬겨주신 모든 주님의 가족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섬김과 사역에 감사드립니다 / 나태열

한국교회를 위하여 이런 시간을 만들어주신 오정현 목사님과 교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간마다 찬양과 기도예, 또 성령 충만한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사역에 힘을 얻습니다. 좋은 강의를 통해서도 사역에 여러 가지 방향과 팁을 얻었습니다. 더욱 힘을 내서 목양에 진심을 다하고 사역에 전심을 다 하겠습니다.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사랑의교회 성도님들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3회 한교섬은 세계 어느 섬보다 귀한 섬이었습니다 / 이윤옥

사랑의교회 평신도 사역자들과 부교역자 이하 모든 분의 섬김이 해같이 빛나십니다. 무엇보다 매시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령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섬겨주신 오정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합니다. 가슴에 기도의 불과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섬기는 교회를 위해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진정한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 서유상

1, 2, 3회 한교섬에 모두 참석했습니다. 1, 2회 때도 은혜로운 시간이었지만, 3회 한교섬은 어느 시간보다 더 강력한 은혜가 임함을 경험했습니다. 받은 은혜로 목양 진심, 사역 전심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섬겨주신 오정현 목사님과 사랑의교회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회 때도 참석하겠습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큰 감동입니다 / 송기홍

1회 때는 노회와 중복되어 참석하지 못했으나 2회와 3회 한교섬에 참석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정현 목사님의 영성이 참 부럽고 본받고 싶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고 자기 맡은 구역에서 자리를 지켜주신 천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님과 교역자님들과 스태프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섬김이 있어서 올해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사랑의교회를 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 감사와 감동 / 이강민

정말 오랜만에 방문한 사랑의교회에서 처음으로 참석한 한국교회 섬김의 날 행사는 안식과 힘과 도전을 주는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집을 내어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저희 부부를 정성껏 섬겨주신 권사님과 교회당 곳곳에서 한결같이 섬겨주신 분들,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작은 것 하나까지도 정성을 다하여 섬겨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기획하시고 진두지휘하신 오정현 목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영혼이 회복하는 잊지 못할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 김은식

이번 한교섬을 통해 오정현 목사님께서 영혼의 진액을 전심으로 쏟아부으신 은혜와 성령의 시간을 통하여 15년 전 성령께서 제게 성령의 기쁨을 부어주셨던 시간을 회복할 수 있었음에 감사했습니다. 당회와 봉사와 사역의 모든 팀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 한교섬을 기대합니다. 사랑의교회가 앞으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길 중보하겠습니다.

조끼 입은 천사들 / 황국순

낯설고 어색하고 복잡한 서울, 어지럽도록 크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배하는 일이 저랑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저곳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친절하게 섬겨주시는 조끼 입은 성도님들이 계셔서 이곳도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거나 안심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물소리 같은 기도와 찬양도, 오랜만에 아이들 신경쓰지 않고 남편과 함께 앉아 예배하는 순간순간이 “Better than I deserved” 과분한 은혜였습니다. 그 사랑과 섬김의 에너지를 충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한국교회 섬김의 날 덕분에, 사랑과 관심과 위로 덕분에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10.21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함께하고 나서 / 권호성

성도들의 모든 섬김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정현 목사님의 열정과 목양에 대한 전심을 느낄 수 있었고 함께 기도하며 한국교회를 향한 목사님의 사랑에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황간에서 목회하고 농촌교회의 현실이 어렵지만 새 힘을 얻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있는 자리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면 사람도, 교회도 지역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수고해 주신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과 사랑의교회 위에 감사드리며, 한국교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양 진심, 사명 전심이 확 마음에 와닿네요.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 신우섭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서 있었을 뿐인데, 치치고 힘겨워 하늘을 쳐다보고 눈물을 흘릴 때쯤에 오정현 목사님의 섬김과 교회의 헌신으로 눈물을 주님의 영적인 손으로 함께 닦아주셨음을 느끼고, 또 다른 부르심에 서 있던 동역자들의 얼굴과 기도의 합성이 힘이 되었던 시간입니다. 섬기시는 오정현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수고가 또한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잊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크신 은혜 받고 갑니다 / 한윤정

사랑의교회의 귀하신 섬김이 한국교회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섬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랑의교회의 그 모든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실 줄 믿습니다. 오정현 목사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 인도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한교섬을 통해 큰 위로와 감동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며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받은 은혜 기억하며 ‘목양 진심 사명 전심’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교섬은 “ABC”다 / 홍현철

A- amazing! : 하나 됨의 은혜와 뜨거운 산상 기도회, 도전되는 특강, 감동의 갈라 무대, 맛난 식사와 간식은 정말로 감탄스러울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B- beautiful! :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C-community -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즉, “교회(영가족)”입니다. 오정현 목사님과 사랑의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넘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심하고 친절한 섬김 이들의 자세와 아름다운 미소는 덤이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예수와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 문정수

한결같이 이번 10.21 한교섬에서도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섬겨주신 오정현 담임목사님과 모든 교역자와 성도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양과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진심과 전심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8천 명의 사역자들을 신실하게 섬겨주심에 감동했고 도전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음 4회, 5회 한교섬으로 계속해서 한국교회를 섬겨주시고 계속해서 천국 잔치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샬롬!

한교섬으로 간 소풍 / 김수경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교섬에 초대받아 사랑의교회로 향하는 저희의 마음은 마치 하늘을 나는 오월의 종달새처럼 들떴습니다. 아침으로 김밥 한 줄 손에 들고 만찬을 대하듯 감사하고, 휴게소에서 받아 든 핫바 하나로 마음이 행복한 우리에게 사랑의교회는 한달음 거리였습니다. 글로벌 광장에 꼭 들어 찬 인파 속에 몸을 날리며, 사랑의 파도에 휩쓸려 산골 목회의 외로움도 소외됨도 간곳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게 됩니다. 오정현 목사님의 명품설교는 영적 각성제가 되어 온몸의 영적 세포를 다시 살아나게 하였습니다. 사랑의교회 교우님들의 때에 합당한 섬김과 헌신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 사과로 한교섬을 빛나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 저희에게는 은혜였습니다.

한교섬은 아름다웠다 / 정창기

한국 최고의 섬이 한교섬이란 오정현 목사님의 말씀이 사실이었습니다. 개회 예배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1박2일 동안 정말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한교섬은 퍼펙트하고 다이나믹하고 뷰티풀한 아름다운 섬이요, 낙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모든 봉사자의 겸손함이 또한 은혜였고 감동이었습니다. 다음에도 한교섬에 꼭 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멋있었습니다.

은상가는 한교섬 / 한영자

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은 바로 한교섬입니다. 가면 갈수록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 진하게 다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양 진심”과 “사명 전심”의 마음과 ‘주여’ 삼창으로 시작되는 통성기도의 은혜가 더 은혜였습니다. 폐회 예배 때 주일학교 아이들이 올려드린 찬양은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러 은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욱 귀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님과 모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구원해 주심도 감사, 사명 주심이 더 감사입니다. 함께한 모든 분께 은혜 위의 은혜가 충만해지시길 소망합니다. 샬롬!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 / 이태우

목양 진심, 사명 전심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또한 한교섬을 통해 8,000명의 신학생과 목회자들을 섬겨주신 오정현 목사님과 사랑의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덤으로 채워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사랑의교회를 통하여 받은 섬김을 기억하며 사람에 대해서는 '목양 진심'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사명 전심'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사랑의교회의 사역 지원을 통해 로고스 성경 연구 프로그램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고스를 통하여 설교뿐 아니라 영성까지 함께 깊어지며 한교섭을 통해 받은 귀한 선물을 나 혼자만이 아닌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며 누릴 수 있도록 부족한 저에게 지혜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빛인 사역인 것 같습니다 / 오성희

벌써 한교섭에 세 번째 참여하였는데 이번에 제일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정현 목사님의 말씀에서 많은 감명을 받았고 헌신적으로 섬기시는 사랑의교회에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7천 명의 목회자님들과 1천 명의 신대원들이 하나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감동되었습니다. 제자훈련에 대해서 어렵פות게 알고 있고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보다 체계적이고 확실한 제자훈련을 해야겠다고 배워야겠다는 다짐을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빛내는 사역인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저에게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 광승현

사역자의 아내로서 쉼 없이 달려온 20년 만에 처음으로 큰 용기를 내어 홀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참석하셨던 같은 지방회 사모님의 추천으로 신청하고 기대함으로 정말 나를 위한 시간을 간절히 소망하며 큰 용기를 내었던 저였기에 처음부터 아주 좋았습니다. 준비된 마음이었기에 사랑의교회의 섬김과 오정현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 성도님들의 밝은 인사 속에 그저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최고의 숙소에서 처음 만났지만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모님과의 만남에 낯선 듯 낯설지 않은 만남도 이미 주님이 예비하셨음을 느끼게 됩니다. 나보다 더 힘든 곳에서 사역하면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모습에 은혜받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목회자의 아내로 살게 하시고 목회 현장 속에 기도의 동역자로, 동지로 삼아주심을 감사할 수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객 만족, 고객 감동~ 목사 만족, 목사 감동~ / 육종섭

이번 10월 21일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후배 목사님과 사모님의 소개로 한교섭을 알게 되어 처음 신청했습니다. 등록할 때부터 감동과 은혜가 폭포수같이 느껴졌습니다. 모 기업의 신조인 고객 만족, 고객 감동을 넘어 목사 만족, 목사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한교섭을 통해 저희도 힘들고 어렵지만 나누고 베푸는 데 더 앞장서겠습니다. 시간마다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 벌써 내년이 기다려집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 인사가 늦었습니다 / 전우진

지난 1, 2회 한교섭을 신청했다가 여러 가지를 핑계로 신청을 취소하고 3회에 이르러서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회 때 참석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이번 과정을 통하여 은혜로 바꿔주셨고 저의 예상을 뛰어넘은 은혜를, 은사가은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랑의교회를 통해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오정현 목사님과 사랑의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국교회 섬김의 날, 제가 섬기는 교회의 담임목사님과 사모님을 모시고 참석할 수 있어 더욱 감사했습니다. 두 분은 사실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이시기도 합니다. 이번 행사를 앞두고 저희 교회와 가정에는 여러 가지 아픔과 시련을 주는 사건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1, 2회 때와 같이 참석하는 것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또 저희 목사님과 사모님을 강하게 밀어붙이셨고 결국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사랑의교회를 개인적으로 방문한 적이 많습니다. 방문하여 타 교회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신 개인 기도실에서 기도 제목들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튜브로 사랑의교회 토비새를 늘 참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토비새를 참석할 때가 부교역자로서 사역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당시 굉장히 힘들고 지쳐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토비새를 접하게 하셔서 저를 위로하셨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여파로 지금까지, 비록 온라인이지만, 참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랑의교회와 함께하며, 2033-50 비전을 위해, 평양에서 특새할 날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전진하겠습니다.

제주도보다 아름다운 섬이 있다고요? / 태종호

제3회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위해 온 심혈을 기울이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겨주신 사랑의교회 온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참여할 기회를 주신 오정현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는 제주도는 세계에서 아주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런데 제주도 보다 더 아름다운 섬이 있다는 오정현 목사님의 문제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갑자기 사방에서 “한교섬”이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교섬은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목회자들을 교회의 위치와 규모에 상관없이 초청하여 다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육체적으로 지친 이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누리게 해 주시는 곳이니 한교섬은 정말 가장 아름다운 섬이 맞았습니다. 그것도 최고로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는 바닷가에서 “용천수”라는 샘물이 마르지 않고 지금도 솟아오릅니다. 예전에 제주 아낙네들은 용천수를 길러 가족과 가정을 살리며 도민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랑의교회 온 성도님들의 섬김과 헌신과 봉사는 용천수와 같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교회의 용천수입니다. 전국에서 오신 목회자들의 지친 심령과 마음에 시원함과 새 힘을 공급해 주시어 저희를 살려주셨습니다. 용천수 같은 사랑의교회와 오정현 목사님의 용기 주심과 격려해 주심과 응원해 주심은 생기를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21 제3회 Korean National Pastors' Conference 한국교회 섬김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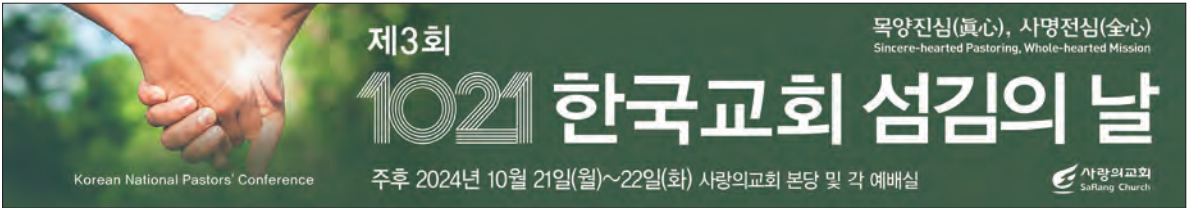
‘10.21 한국교회 섬김의 날’ 가로등 배너



‘10.21 한국교회 섬김의 날’ 강의실 및 등록 x배너



‘10.21 한국교회 섬김의 날’ 광장 입간판



‘10.21 한국교회 섬김의 날’ 본당3층 배너와 배열 순서





남북 캐노피 등록처 현수막

1021 한국교회 섬김의 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개인등록처

1021 한국교회 섬김의 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부부등록처

메인 현수막

제3회 1021 한국교회 섬김의 날

Korean National Pastors' Conference

주후 2024년 10월 21일(월)~22일(화) 사랑의교회 본당 및 각 예배실

“목양진심(眞心), 사명전심(全心)”

Sincere-hearted Pastoring, Whole-hearted Mission

“인간관계에 섬김이 있는 사랑의교회” 영도들의 헌신입니다
“인간관계에 섬김이 있는 1021-세상”이란 뜻입니다
“인간관계에 섬김이 있는 세상”이라는 한국교회를 위해 “인간관계”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섬김이 있는 한국교회”는 세상 만물에 대해서도 “인간관계”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섬김이 있는 1021-세상”이란 뜻입니다

주강사

강사

특별강연

W E L C O M E

등록처는 1층 마당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10:00~17:00 출입통제)

Korean National Pastors' Conference

제3회 1021 한국교회
섬김의 날

“목양진심(眞心), 사명전심(全心)”
Sincere-hearted Pastoring, Whole-hearted Mission

사랑의교회
SaRang Church

‘10.21 한국교회 섬김의 날’ 선택강의 엘베 스티커



‘10.21 한국교회 섬김의 날’ 선택강의 품보드 및 현수막

S402 | 선택강의 : 황호찬 선교사
요한홀2 | 한국교회 재정의 건전성
및 컨설팅

S402 | 선택강의 : 황호찬 선교사
요한홀2 | 한국교회 재정의 건전성
및 컨설팅

↑ N201
언약채플
방향

S203 →
웨스트
채플

↑ S203
웨스트
채플
방향

N201 언약채플
선택강의 : 브라이언 채플 목사
어떻게 하면
예수님 중심의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 S203
선택강의 : 이수훈 목사
어린이를 통한
교회 부흥 원리

B402 아트채플
선택강의 : 윤난영 사모
어떻게 성경적 영성을
형성할 것인가?

N201 언약채플
선택강의 : 브라이언 채플 목사
어떻게 하면
예수님 중심의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1021

제3회 Korean National Pastors' Conference

한국교회 섬김의 날

“목양진심(真心), 사명전심(全心)”

발행인 오정현

편집인 박성은, 오우진, 고은빈

발행처 사랑의교회

주후 2024년 12월 22일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21 사랑의교회

전화 02.3495.1000~4

팩스 02.3495.1009

디자인 하트비 www.heartbee.com

 사랑의교회
SaRang Church